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오순절 후 열셋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Taste of Korea from OHC 회의가 예배 후 4시 30분에 시나이룸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참여 부탁드립니다.
4. 다음 주 담임목사님 휴가로 이유리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합니다.
5.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24일 : 박가은 / 26일 : 오세린 / 27일 : 이예안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소정진 / 설교번역: 이유리
- 8월 안내 및 봉사: 청년 목장

*향후 교회 행사 (Upcoming Event)

- 목자모임 : 9월 6일 주일 예배 후
- KPCA 중앙노회 : 9월 8일 화요일, 시카고 아가페장로교회
- 부서지기모임 : 9월 13일 예배 후

*성서일과 Lectionary (제 34주)

사 51:1-6 / 시 138 / 롬 12:1-8 / 마 16:13-20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8월 말까지 쉽니다.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Senior Pastor) : 김경현 목사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 138:1-3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김보현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학생 및 교사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로마서 12장 1-2절 — 인도자

설교 — Secular-Saints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깊은 심심함

아침 저녁 제법 날씨가 선선했죠? 8월 7일이 입추였고, 8월 23일은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입니다. 해도 많이 짧아졌습니다.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나나 했던 아이들의 방학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여름 내내 아이들 돌보시고 밥해 먹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애쓰셨고 격려와 칭찬을 여러분께 아끼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는 지난 주부터 손님이 한 분 와 계십니다. 작년에 버지니아로 이사갔던 태균이 아시나요? 이시원 자매님의 둘째 아드님이죠. 태균이가 제 맏아들인 선율을 보겠다고 2주 동안 우리집에서 머물기로 하고 온 것입니다. 애네 우정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친구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도시로 유학을 가면서 모든 것이 낯설었고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등학교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날아 올 친구 한 명 있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요? 우정의 관계만큼 신나고 부요한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사명을 소박하게 말한다면 우정의 관계를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닐까요? '뜻을 같이하는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 말씀하셨던 공자님의 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친구는 언제나 소중하고 언제나 정겹습니다. 손님이 찾아 왔지만 그도 저희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식탁에서 밥 먹을 때는 모든 전자기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한병철이라는 철학자는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을 동물들의 특징으로 규정합니다. 동물들은 밥을 먹는 와중에도 귀를 열고 자신의 천적이 공격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없는 것이죠. 먹이를 씹으면서도 귀를 쫓긋거리며 주변을 기웃거리려야 하는 멀티태스킹이 동물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과 사회는 인간에게 이러한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데, 인간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것이라 진단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집중력의 확장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력을 여러 갈래로 찢어놓는 생존용 과잉경계(Hypervigilance)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진 성과 사회의 인간이 잃어 버린 것은 멈춰 섬, 사색, 깊은 심심함이라고 그는 진단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깊은 사색입니다. 한 가지 대상에 오롯이 깊이 몰두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문명의 창조와 발전은 깊은 심심함에서 출발한 사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깊은 심심함을 기다려 줄 여유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밥을 먹는 와중에도 Swaping(쓸어넘기기), Tapping(두드리기)이라는 디지털 의례(digital liturgy)를 행합니다. 이런 디지털 의례는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적어도 우리집 식탁에서 만큼은 인간이기를 원하는 마음에 식탁을 Tech-Free Zone으로 정한 것입니다. 테크프리 존, 테크프리 타임을 지정하여 깊은 심심함에 머물러 보는 것은 인간이기를 위한 작은 몸부림은 아닐까요? 디지털 예전을 멈추고 깊은 심심함 가운데 오롯이 음식을 음미하고, 식탁의 상대를 즐거워하며 이야기 하는 것은 인간됨의 작은 실천이 아닐까요?